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소식지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Newsletter

발행 : 박계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학술정보개발팀내
 편집 : 기획편집위원회 (042)350-4496 Fax (042)350-4475 E-mail ksla@ksla.info 홈페이지 <http://www.ksla.info>

회원동정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술정보관 개관기념 세미나 개최 / 2010. 2. 24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10년 2월 24일(수), 학술정보관 1층 오디토리움에서 울산지역의 공공대학기업체 도서관과 부산경남경북지역의 주요 대학 도서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정보관 개관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백이든 사서(울산대), 이용진 주무관(울산광역시청), 이종덕 차장(현대중공업), 곽창호 계장(백인제기념도서관) 등이 주제 발표를 담당하고,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용재 교수의 사회로 발표 종합 및 패널 토론을 가졌습니다.



□ KAIST 학술정보시스템 v.2 서비스 오픈 / 2010. 2. 8

Lips 웹기반의 전자도서관 포털솔루션
 Internet Library Information Portal Solution



한국과학기술원(www.kaist.ac.kr)은 지난 2007년 KAIST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KAIST 학술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009년에는 과학도서관-ICC도서관 전자도서관 서비스 통합 사업을 거쳐 2010년 2월 8일 "웹기반의 전자도서관 포털솔루션" KAIST 학술정보시스템 v.2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번 v.2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적용 및 모니터 사양에 따른 와이드 화면 지원, 원문파일 및 e-Resource 관리 등과 같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 제42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 2010. 2. 25



지난 2월 25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1차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에서 본 협회회의 소민호 이사(한국과학기술원)가 개인상을 수상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정보화 기획실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이 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 수상 (김경철 기획편집위원장) / 2010. 2. 5



본 협회회의 김경철 기획편집위원장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 2월 5일 「2009년 정부출연(연) 우수기관 및 연구원 포상」에서 다양한 연구지원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국가 R&D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원활한 연구지원을 위한 웹진, RSS 등 최신 정보서비스 개발 및 연구성과 홍보, 경영업무 개선을 위한 정보화 사업,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박사학위 취득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재복 회원, 국방과학연구소 황재영 회원) / 2010. 2.



<유재복 회원>



<황재영 회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재복 회원이 “특허 인용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문학박사(전공: 문헌정보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황재영 회원이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측정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충남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협의회 소식

□ 제 2대 박계숙 회장 취임 / 2010. 2. 1



본 협회회의 제 1대 최호남 회장 사임에 따른 회장보선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계숙 후보가 제 2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협회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던 최호남 회장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박계숙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협회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총무 신규 임용 - 심우섭 / 2010. 3. 2



본 협회 사무국에서는 3월 1일자로 신임 총무를 임용하였습니다. 신임 심우섭 총무의 임용을 축하하며, 본 협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정희윤 총무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 2010년도 KSLA 워크숍 및 정기총회 개최 / 2010. 1. 28 ~ 29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28일(목)과 29일(금) 양일간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0년도 KSLA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첫날인 28일(목)에는 최호남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도서관협회 이은철 회장의 격려사와 부산대 최정태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저자인 최정태 교수는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각 나라의 도서관과 책에 관한 사랑 및 문화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강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KSLA 사업계획" 발표, "전문도서관 Best Practice" 라는 주제의 6개 회원기관 사례발표 및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신석 전임 회장의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화합의 장인 신년하례회 저녁만찬은 각 기관 소개 및 인사와 더불어 역대 회장(기민호, 정덕영, 김재수, 박신석) 여러분이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덕담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민영 사서와 (주)아르고넷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9일(금)에는 2009년도 전국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삼성경제연구소(발표자: 이순란 이사)와 한국조세연구원(발표자: 김경철 기획편집위원장)의 도서관 운영현황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KSLA 기술운영위원회 유안나 위원의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도서관 서비스'라는 주제의 해외정보관리 사례 발표로 워크숍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곧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최호남(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회장의 사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선으로 박계숙(한국전자통신연구원) 회원을 심임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sla.inf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KSLA 연구논문 공모 -

1. 목 적

-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SLA)는 도서관인들의 학술연구를 적극 권장하고 우수 논문을 발굴해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0.3.15(월) ~ 2010.4.5(월)
- 주 제: 논문주제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자유로이 선정.
- 참가대상: 도서관 관련 학계, 현장사서, 업체종사자 누구나 응모 가능.
- 제출자료
 - ① 연구계획서: 제목,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범위, 주요 목차 및 목차별 간략내용, 참여 연구자의 주요 경력 및 연구실적
 - ※ 형식: A4 3쪽 이상(연구자 정보제외), 한글 10폰트/줄간격 160
 - ② 세미나 발표자료: 발표시간 40분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함
 - ③ 최종논문: KSLA Bulletin 게재용 최종 논문을 제출함
 - ※ 형식: A4 기본용지 15쪽 내외 (한글 10폰트/줄간격 160)
- 세부일정

추진사항	일정	비고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4월 5일	사무국
연구계획서 심사 및 결과통보	4월 13일	개별통보
세미나 발표자료 및 논문초안 제출	6월 15일	
최종논문 제출	7월 31일	
세부일정은 연구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시 함께 통보		

※상기 일정은 본 협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방법: 연구계획서를 E-mail로 제출(ksla@ksla.info)
- 제출 및 문의처: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사무국(전화. 042-350-4496)

3. 논문심사 및 연구비 지원

- 논문심사: 연구계획서 심사결과 선정된 우수 논문은 KSLA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제출한 논문은 KSLA Bulletin에 게재.
- 선정논문수: 5편 내외.
- 연구비지원: 논문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논문이 없는 경우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개별적 통보 및 KSLA 홈페이지에 게시
- 논문저작권: KSLA Bulletin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로 되기 전까지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KSLA에서 소유하지 않음

사무국에서는 지금

- 2010년도 KSLA 워크숍 및 정기총회 개최 (2010. 1. 28 ~ 29 / 천안 상록리조트)
-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회장상 수여 (2010. 1. 29 / 김민영(삼성경제연구소), (주)아르고넷)
- KSLA-KLA 간담회 개최 (2010. 2. 19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석 (2010. 2. 25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회원현황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리뉴얼 등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 KSLA 홈페이지 및 종합목록시스템 업데이트
- Union DB 구축 : 신규회원 소장자료 구축 및 기존 회원 자료 업데이트
- 회원정보 업데이트 및 회원명부 인쇄 배포
- KSLA Bulletin 연구논문 공모
- 2-1차 교육위원회 개최 (2010. 3. 1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1차 기술운영위원회 개최(2010. 3. 24 /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대전))
- 2-1차 이사회 개최(2010. 3월중)

임원진 활동사항

- 1-7차 이사회 (2010. 1. 29 / 천안 상록리조트)
 - KSLA 제 1대 최호남 회장 사임에 따른 회장보선
 - 특별회원 가입심의
- 2010년도 KSLA 정기총회 (2010. 1. 29 / 천안 상록리조트)
 - 2009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2-1차 사업단 회의 (2010. 2. 17 /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 (주)디지쿼터스의 'KSLA 기반 표절방지 시스템' 제안에 대한 사업성 검토
- 2-1차 논문심사위원회 (2010. 2. 25 / 한국조세연구원)
 - KSLA Bulletin 발간 및 논문 심사 세부일정 논의
 - 논문모집 공고안 확정

회원현황 및 가입안내

본 협의회는 현재 일반회원 93개 기관, 특별회원은 29개 기관, 평생회원은 2명입니다. 본 협의회 회원은 연 1회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 그리고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원기관간의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 다양한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지, 소식지, 학술발표집 등의 각종 발간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무국(Tel : 042-350-44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향기 ☺

☑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코리아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이 올림픽 역사를 다시 썼다. 남녀 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10,000m까지 제패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이승훈의 10,000m 금메달은 아시아인으로 처음인데다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웠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에 대해 '충격적인 승리', '가장 예상치 못했던 금메달'이라는 표현을 늘어놓으며 감탄하고 있다.

2010년 밴쿠버 대회 이전까지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김윤만이 최초로 딴 은메달과 4년 전 토리노 대회에서 이강석이 따낸 동메달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랬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한국인만의 기술응용력을 비결로 꼽는다. 쇼트트랙 강국의 노하우를 스피드스케이팅에 꾸준히 접목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다. 쇼트트랙의 코너워크 기술을 스피드스케이팅에 활용해 코너를 돌 때 가속할 수 있었고, 쇼트트랙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스케이트화 기술로 만든 스케이트 날도 새로운 무기가 됐다.

코너워크 기술은 쇼트트랙 강국이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의 장기다. 쇼트트랙은 스피드스케이팅에 비해 곡선운동이 많은데, 이런 코스에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은 고무 벨트를 허리에 걸고 코너를 도는 훈련을 한다. 지도자가 벨트를 당겨주는 동안 넘어지는 않는 감각을 익히는 것은 원심력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덕분에 선수들은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 수 있다.

코너워크 기술은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종목은 초반 100m 이후 첫 코너링에서 얼마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을 하느냐에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코너에서 너무 욕심을 내면 원심력을 견디지 못해 넘어질 수도 있고, 균형을 잡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누가 코너링에 강하냐'가 메달 색깔을 결정짓는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쇼트트랙의 코너워크 기술을 스피드스케이팅에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도 지난해 여름 쇼트트랙 스케이트화를 신고 코너링 훈련에 집중했다. [+ more](#)

[출처 : KISTI 과학향기]

◆ 신규 회원 가입 (1개 기관) ◆

☐ 특별회원 : 디지쿼터스 (2010. 1. 29)